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1월 21일
제1984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르 1,17-18)



〈나를 따르라〉, 김옥순 수녀 작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나해)

제 1 독서 요나 3,1-5.10 | 니네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화답송 시편 25(24) |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제 2 독서 1코린 7,29-31 |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마르 1,14-20 |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6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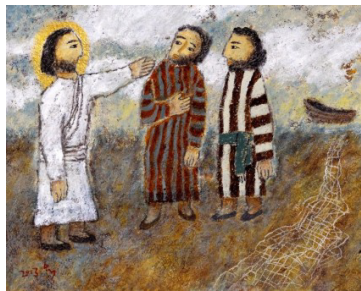
19 예수님께서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복음 묵상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나를 따르라>, 김옥순 수녀 작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어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복음 묵상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교리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영원히 묵주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하는 곳이고, 영원히 미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영원히 하느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영원히 교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자 한 아이가 “아이고.”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기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하였더니, 아이들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예로 들었던, 묵주 기도, 십자가의 길, 미사, 하느님 말씀, 교리,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미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신앙의 분명한 목적의식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저 교우들과 만남에서 얻어지는 기쁨만을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으로 느끼며 미사에 나옵니다.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는 이유도 잃어버리고, 미사와 복음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도 느끼지 못하며, “하느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교우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처럼 세상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삶의 모든 습관에서 떠나, 하느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라고 선포한 요나 예언자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선택을 한 것처럼,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회개의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신앙생활은 복음을 믿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김재덕 베드로 신부>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통하여,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 거행은 교회 일치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듣는 이들에게 참되고 굳건한 일치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 말씀의 선포를 강조하고, 강론에서도 주님 말씀에 마땅히 드러야 하는 공경을 부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경청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일치 안에서 모든 이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목자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 백성의 책이기에, 말씀의 봉사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자신이 맡은 공동체가 성경에 맞들이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

교리교사들 또한 성경을 가까이하고 연구함으로써,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는 직무를 위하여 스스로를 쇄신할 시급한 필요성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듣는 이들이 하느님 말씀과 참 대화를 나누도록 복돋워 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성찬례 거행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길러 주시는 주님 현존에서 힘을 얻어 역사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한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경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잘 알고 더욱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빵을 나누어 주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가까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형태로 눈이 먼 채, 감은 눈과 냉담한 마음만 지니게 될 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1 '하느님의 말씀 주일' 제정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교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중에서

하느님의 말씀 주일 로고

로고에는 너무도 잘 알려진 성경의 한 장면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여정(루카 24,13-35 참조)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입니다. 이 성화는, 일생을 예루살렘의 베네딕토회 골고타 노트르담 수녀원에서 지내다 지난 5월에 선종한 이집트 수도자 마리-폴 파란(Marie-Paul Farran) 수녀의 작품입니다. 성바오로출판사의 조르다노 레다엘리(Giordano Redaelli)가 이 성화를 그래픽화하여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로고는 하느님의 말씀 주일의 여러 측면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인물이 보입니다. ‘경전 두루마리’, 곧 당신 안에서 실현된 성경을 손에 들고 계신 그리스도와 두 제자가 있습니다. 루카의 분명한 기록대로 한 제자는 클레오파스이고, 일부 성경 주석가들에 따르면 다른 한 제자는 그의 부인입니다. 클레오파스는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순례의 표지입니다. 그의 부인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듯합니다. 두 제자의 얼굴은 모두 주님을



향하고 있으며, 그들의 손은 각기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여인의 왼손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분께서 구약의 완성이자 세상에 선포해야 할 살아 있는 말씀이심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클레오파스의 왼손은, 제자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에게 전하러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리킵니다. 제자 클레오파스 옆에 있는 별은 영원한 빛으로서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고 미래로 이끌어 주는 복음화의 표징입니다. 동작의 역동성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발은 그들이 걷고 있음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러 파견되어 나아가는 여정에 있음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로고의 전체 장면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의 핵심을 되새겨 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려면, 지치지도 나태해지지도 않는 제자들, 성경을 교회 생활의 살아 있는 규범으로 만들어 주는 새로운 언어들을 늘 찾아 나서는 역동적인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1 출처: <https://www.cbck.or.kr/Notice/20190311?gb=K1200#>

1 2024년 본당 달력 배부

- 2024년 본당 달력을 배부했습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이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1월 21일(일) 오전 11:30 (B-3,4)

3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1월 21일(일) 오전 11:30 (A-1,2,3)

4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1월 21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5 요한회(50대) 월례 회의

- 일시 : 1월 21일(일) 오전 11:30 (하상관)

6 울뜨레야 월례 모임

- 꾸리실리스타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1월 26일(금) 오후 8시 (A-1,2,3,4)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미사 후)
- 문의 : 김영석 마티아 (703) 835-6308

7 루카회(60대) 월례 회의

- 일시 : 1월 28일(일) 오전 11:30 (B-2)

8 KoC 월례 회의

- 일시 : 1월 28일(일) 오전 11:30 (B-3)

9 베드로회(40대) 첫 총회

- 일시 : 1월 28일(일) 오후 6시 (친교실)
- 2024년 활동 계획 및 친교 나눔
- 문의 : 이기웅 베드로 (703) 732-7785

10 2024년 성경학교 동계 워크숍

- 대상 : 성경에 관심 있는 전 신자
- 일시 : 1월 28일(일) 오전 11:30 - 오후 3시(점심 제공)
- 등록 : 1월 21일(일)까지 교육부로 신청
- 문의 : 윤영미 로사리아 (703) 850-2968

11 2024년도 교무금 카드 발송

- 2023년도 세금공제서와 2024년도 교무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주소를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사제수품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김태진 베네딕도 주임 신부님의 사제수품(1994년 2월 2일)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제수품 30주년 축하 미사
2월 2일(금) 오후 6시 미사

12 설날 합동 위령미사

- 설날 합동 위령미사는 2월 11일(주일)에 봉헌됩니다.
-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주일 미사 시간(교중미사 포함)에 봉헌할 수 있습니다.
- 10시 미사 중에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연도와 제례가 있습니다.

13 2024년 혼인 갱신식

- 일시 : 2월 25일(일) 10시 미사 중
- 세계 결혼기념일을 맞아 결혼 25, 30, 40, 50, 60주년을 맞는 부부들을 혼인 갱신식에 초대합니다.
- 신청 마감 : 1월 28일(일)까지
오전 8시, 10시 미사 전·후 (친교실)
- 문의 : 김진호 다니엘 (703) 300-5420

14 제6기 성 마리아 어머니 학교

- 일시 : 3월 2일(토) - 3일(일), 1박 2일
- 수강료 : 일인당 \$180.00
- 장소 : The Northern Virginia 4-H Education Center
- 참가 대상 : 어머니(나이 제한 없음, 선착순 40명)
- 접수 기간 : 1월 21일(일) - 2월 4일(일) (친교실, 성당 입구)
- 문의 : (703) 470-1220 / (703) 864-1236

교중미사 예물봉헌

01/21 이번 주 애난데일 구역

01/28 다음 주 알렉산드리아 구역

성당 청소

01/21 이번 주 센터빌 2,3구역

01/28 다음 주 페어팩스 2-1, 2-2구역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에 관한 본당(알링턴 교구)지침

- ① 질병이나 약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 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송(공소예절, 기도, 성서 읽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교구 웹사이트 참조)
- ② 우리 본당은 약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 (www.fcps.edu 참조)
- ③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약천후로 인해 미사 참례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 참례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④ 약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1월 14일 (연중 제2주일)

봉헌금	\$ 8,130.00
교무금	\$ 9,755.00
교무금(신용카드)	\$ 5,030.00
감사 헌금	\$ 1,330.00
온라인 봉헌	\$ 1,620.00
합계	\$ 25,865.00

버지니아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1월 25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1월 26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1월 28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성서 못자리 : 김택재 신부 4복음서 강의
[제 8권 '마태오 복음 수난기']

※ 기상 악화로 인해 지난 주 프로그램을 재방송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r> <tr> <td></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